

[새봄 기풍 탐방]

귀국창업으로 농촌재배업 희망의 불씨 지펴올리다

— 안도현 영환산나물재배유한회사 리영환씨의 이야기



▲ 4년생 앵두나무가 봄을 맞아 꽃망울을 터뜨리었다.

3월 11일 오전, 안도현 석문진 봉흥촌에 자리잡은 안도현영환산나물재배유한회사의 비닐하우스에 들어서니 먹음직스럽게 돌아난 파릇파릇한 곰취밭이 눈앞에 펼쳐졌다.

리영환(54세)씨가 귀국창업으로 50여만 원을 투자해 2019년부터 시작한 산나물 재배 하우스들마다 곰취며 미나리, 앵두나무의 자람새가 좋았다. 곰취와 미나리는 지난 2월부터 수확해서 묶속 팔고 있고 6개 하우스에 심은 앵두나무는 지난해부터 꽃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 미래가 더 희망적이다. 앵두는 3년 이상부터 꽃피고 열매를 맺는데 올해는 이미 심은 지 4년째이 되니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고 바야흐로 효익을 보게 된다고 리영환씨가 소개했다.

안도현 태생인 리영환씨는 한국에서 10여년간 일하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하자 고향에서의 창업을 꿈꾸었다. 해외의 기계적인 취업과 생활보다는 귀국창업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리영환씨는 귀국창업에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품종에 눈길을 돌렸다. 그래서 안도현 석문진 봉흥촌과 토지임대계약을 맺고 2019년에 총 5천평방미터 되는 10개 동의 비닐하우스에 산나물 재배를 시작하였다.

날이 갈수록 건강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자연 곰취와 미나리는 6~7월이 돼야 나온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면 2월 중순경부터 수확이 가능하니 적어도 서너달 앞당길 수 있어 시장 전망이 밝은 재배 품종들이다.

비닐하우스는 낮에 햇빛으로 온도를 저장했다가 밤이면 하우스에 이불을 덮어 온도를 보정하면서 작물 생장에 유리한 온도 조건을 마련해주어 농작물의 자람새가 좋다. 리영환씨는 무공해 유기농 남새 재배를 고집하고 있는데 소 분변으로 땅을 살찌우고 살충제나 농약 같은 것을 일절 쓰지 않는다고 했다.

곰취는 잎사귀 직경이 15센치 이상 되면 시장에 나갈 수 있는데 곰취와 미나리는 당일 주문량에 따라 수확해서는 도매상과 온라인 주문을 통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곰취는 한근에 28원, 미나리는 한근에 15원에 팔리고 있는데 안도현과 연변 각지는 물론 멀리 북경,

청도, 광주 그리고 한국, 일본 등 해외에까지 팔리고 있다. 주문만 들어오면 수량과 지역에 관계없이 현지에서 바로 채취해서 신선도를 보장하면서 빠르게 보내주고 있다고 리영환씨는 소개했다.



에는 모두 앵두를 재배하고 있었다.

앵두나무는 대련에서 도입한 품종으로 특수 품종을 통한 차별화에 재배 목적을 두었다. 앵두나무는 도합 400그루 쯤 되는데 옮겨 심을 때 이미 3년생이었기에 올해 이미 4년생으로 컸으며 바야흐로 수확이 가능해졌다. 앵두나무는 5년생을 넘어서면서 성숙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수확량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게 되니 더욱 희망적이다. 앵두는 보통 4~5월경에는 수확할 수 있는데 첫물 앵두는 채취 체험 가격으로 최고 키로그램당 근 100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게 팔 수 있는 효자 재배 품목으로 전망이 흐릿하다.

“시장에서 희소한 재배 품목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것이 제가 앵두나무를 선택해서 재배하게 된 동기입니다.” 리영환씨가 처음의 곰취, 미나리 등 산나물 재배를 후에 점차 앵두 재배로 전향한 것도 새로운 앵두 품종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맥락에서였다. 리영환씨는 자연 곰취, 미나리와 같은 전통 산나물 뿐만 아니라 특수 품종의 앵두를 도입해 시장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생산 시기를 앞당겨 비철에도 신선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선점 효과를 거두려 한 것이다.



▲ 요즘 들어 수확 절정기를 맞은 안도현영환산나물재배유한회사 비닐하우스 안의 곰취밭
◀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는 당시 촌민

“비록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 효익도 많지 않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창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국창업자에게 토지 임대 우대, 세제 감면, 창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리영환씨는 안도현 석문진 봉흥촌과의 토지임대계약을 통해 넓은 재배면적을 확보했으며 세금 감면은 물론 현지 민정부문의 무리자대 출 혜택도 향수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은 귀국창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창업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앵두나무들마다 때를 맞춰 열기떨기 앵두꽃들이 곱게 피어났다. 아직 어린 앵두나무지만 자식 못지 않게 귀하다고 말하는 리영환씨, 그의 귀향창업 희망은 각갈라 가지개를 켜는 새봄처럼 힘차고 알차게 열려가고 있는 듯했다. 리영환씨의 귀국창업은 전통 작물과 혁신적 품종 도입을 결합한 전략적 농업 모델의 방향을 보여주고 새 농촌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상근 김파 기자



전망대

올 시즌 연변룡정팀 첫 상대 광주표범팀의 실력은?

3월 15일 19시 30분, 광주시 월수산체육장에서 연변룡정커시아팀(이하 ‘연변팀’)은 광동광주표범팀(이하 ‘광주표범팀’)과 2025 시즌 첫 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2024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의 최대 이벤트를 꼽으라면 을급리그에서 승격한 운남옥곤(2023 시즌 을급리그 3위)과 대련영박(2023 시즌 을급리그 2위)이 선배팀들을 누르고 손쉽게 슈퍼리그에 진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같은 시기 을급리그에서 승격한 팀인 중경동량풍이 5위를 차지하고 청도홍사가 14위를 차지하였는데 총체적으로 을급리그에서 승격한 팀들의 실력이 만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올해 갑급리그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고 그 실력들이 두터운 배일 속에 가려져있다는 것이다. 슈퍼리그에서 강급한 남통지운, 강서성으로 홈장을 옮기고 대량의 선수들을 영입 교체한 정남감련(원 흑룡강병성), 그리고 을급리그에서 올라온 광주표범, 대련공성, 심수청년인, 섬서연합 등 4개 팀이다.

연변팀의 2025 시즌 첫 상대인 광주표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광주표범 축구구락부는 2023 년도에 설립된 나젊은 축구구락부이지만 축구팀의 성격과 운은 남달리 좋아 2023년에 중국챔피언스리그 5위를 차지하였지만 보충자격으로 을급리그에 승격되었고 2024년에 5라운드 앞당겨 갑급리그 진출을 확정하고 4라운드 앞당겨 을급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 중국의 프로축구권 내에서 보기 드문 3단뛰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다.

3년내에 3개의 부동한 리그를 뛰게 되는 이 팀의 올해 목표는 바로 지난해의 운남옥곤과 대련영박처럼 강호들을 제치고 슈퍼리그로 가는 것이다. 슈퍼리그 진출을 목표로 한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지난 3월 9일 광주표범구락부 총경리 왕대명은 《양주석간》과의 인터뷰에서 “축구의 분위기가 짙은 광주에 슈퍼리그팀이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해 올 시즌의 목표를 슬쩍 내비쳤고 감독 러병은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슈퍼리그 진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런 생각으로 선수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갑급리그 1학년생으로 많은 일들은 다그치면 되려 잘못될 수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올 시즌의 임무에 대한 자기 생각을 피력하였다.

광주표범팀은 지난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19명의 선수들을 새로 영입하였는데 이 가

운데 운남옥곤의 강적홍, 심수신병성의 하달룡, 성도용성의 진국량, 료녕철인의 단운자, 등표, 레앙 카로스, 광주의 후예, 양호, 불산남사의 마준량, 광서평과하료의 선봉비, 남통지운의 로싸 등은 슈퍼리그와 갑급리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로서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레앙 카로스(몸값 40만 유로, 이하 동구제 기준), 로싸(몸값 45만 유로), 니강(몸값 75만 유로) 등 용병인데 니강은 중앙조직을 잘하고 레앙 카로스와 로싸는 공격선에서 놀라운 속도와 개인기로 기회를 창조한다는 점이다. 3명 용병은 모두 브라질적 선수로서 속도가 빠르고 경험이 풍부하기에 이들의 활약 정도는 올 시즌 광주표범팀의 순위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3명 용병의 몸값만 해도 160만 유로로 연변팀의 총 몸값 191만 유로(이적시장 168만 유로)와 거의 맞먹고 심수청년인, 광서평과하료 등 하위팀들보다 많다. 1선팀의 총 몸값은 336만 유로로 갑급팀들 중 세번째로 투입이 많은 팀이다.

참고로 연변팀 용병들의 몸값은 음바가 30만 유로, 포브스가 22.5만 유로, 도밍구스가 15만 유로인 총 67.5만 유로로 광주표범팀의 용병 니강 한사람 몸값에도 못미친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선수들의 몸값도 광주표범팀은 총 176만 유로, 연변팀은 총 123.5만 유로로 차이가 비교적 크다.

한편 연변팀은 3명의 용병과 박세호, 황진비, 정지유 등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여 팀 실력을 보완하고 3차의 전지훈련을 거쳐 체력, 전술, 정신력과 경기력이 한층 제고되어 기대를 가질 만한 팀으로 만들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첫 4라운드 원정경기를 소주, 무석, 남경, 상해 등 강강중하류 지역의 실력이 비슷한 팀들과 맞붙었던 지난 시즌에 비해 다소 불완전해진 듯하지만 광주에 원정을 갔다가 14일후에 다시 청도홍사, 료녕철인, 석가장공부 등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팀들과 차례로 원정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변팀이 비록 원정경기이고 상대가 강팀(?)이라고 하지만 리그 첫 라운드인 만큼 아직 배합이 미숙한 상대의 약점을 잘 리용하고 팀 전체가 이기형 감독을 비롯한 감독진의 두리에 토폴 문쳐 자신의 기동력활한 전술체제로 상대를 푹푹 묶어둔다면 3차의 전지훈련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태국기자



▲ 지난 2월 곤산사에서 제 3차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연변팀 선수들

연변 의무교육학교, 매주 최소 한시간 축구수업 개설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공식 사이트에는 학교 체육 개혁 사업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통지가 발부되었다. 통지에는 여러차례 학교 축구 교육이 언급되었는데 의무교육학교는 매주 최소 한시간의 축구수업을 개설하고 그중 축구특색학교는 매주 최소 2시간의 축구수업을 개설한다.

★ 일제화 체육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축구, 농구, 배구 특기생의 진학 경로를 넓히며 2025년 가을학기까지 학교 축구 프로젝트를 시범으로 삼아 축구특기생의 ‘소학교에서 중학교로’의 다학구 진학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각 현(시)은 최소 한곳의 일반고중이 자주적 입학시험을 통해 축구특기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의무교육학교의 축구, 병설 수업의 전

면 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무교육학교는 매 학년 12~18시간의 병설운동 및 대체 종목 수업을 개설하고 매주 최소 한시간의 축구수업을 개설한다. 그중 축구특색학교는 매주 최소 2시간의 축구수업을 개설한다.

★ 당일 종합 체육활동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방과후 봉사시간에 체육단련 시간을 배정하여 보충함으로써 학생들의 운동량을 표준에 도달시키고 단련 효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

★ 일반고중에서 자주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학생모집 비율에 따라 축구특기생 자주적 학생모집 지표가 8명 이하일 경우 축구특기생 모집 인원을 최대 8명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기타 항목의 자주적 학생모집은 학생모집 비율을 엄격히 준수한다.

/인민넷



3월 12일, 연길시인 홍소학교에서는 제 47번째 식수절을 맞이하여 주제활동을 전개했다. 반급별로 진행된 이번 주제활동은 학생들에게 식수절의 유래와 의의를 깊이있게 리해시키고 나무와 인류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해석했다.

/중국조선족소년보